



공모펀드 활성화 방안

2016. 4. 27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	2
III. 기본 방향	3
IV.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	4
V. 펀드 산업 내 경쟁 촉진	9
VI. 기 대 효 과	14
VII. 향후 추진 계획	15

I 추진배경

-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
 - '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는 연 3.6% 성장하고 있지만, 해외 공모펀드 및 국내 여타 금융분야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더딘 측면
 - * 美 공모펀드 수탁고(Trillion \$) : ('08) 9.6 ('10) 11.8 ('13) 15 ('15) 15.6, CAGR 7.2%
 - ** 韓 금융자산(천조원) : ('08) 8.9 ('10) 10.7 ('13) 12.6 ('15) 14.6 CAGR 7.3%
 - 특히,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
 - * MMF 외 공모펀드(조원) : ('07) 176.4 ('09) 145.1 ('11) 117.8 ('13) 120.2 ('15) 127.7
- 투자수단으로서 공모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상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공모펀드 부진을 더욱 심화시킴
 - ①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의 증가는 연기금이 투자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일임·사모펀드 및 PEF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
 - * 국민연금 규모 추이(조원) : ('03) 100 ('09) 278 ('14) 470 ('15.3) 489
 - * 일임·사모펀드·PEF CAGR('08~'15)(%) : (일임)16.5 (사모펀드) 7.3 (PEF) 21.9
 - ② 일반투자자들은 공모펀드를 대신하여 원금 보장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과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
 - *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(조원) : ('08) 42.3 ('10) 60 ('13) 63.6 ('15) 93.6, CAGR 12%
 - * ELS 발행잔액(조원) : ('08) 25.1 ('10) 16.9 ('13) 40 ('15) 60.9, CAGR 13.4%
- 공모펀드 부진의 원인으로 연금 등 강제저축의 증가, 가치분 소득의 감소 등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, 공모펀드의 낮은 투자 매력도 등 내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

➡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

II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

◇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,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,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

- ① (수익률) 그간 공모펀드는 손실 가능한 상품임에도 예금보다 유의미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지 못해 투자자 실망을 초래

예금·공모펀드 연간 실질수익률 비교(세금제외)

(단위 : %)

구 분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
공모펀드(A)	3.33	19.94	△27.40	41.13	10.44	△9.04	7.82	2.87	0.95	2.34
예금(B)	4.54	5.25	5.98	3.85	3.58	3.96	3.48	2.81	2.45	1.78
A - B	△1.21	14.69	△33.38	37.28	6.86	△13.00	4.34	0.06	△1.50	0.56

* A : 공모펀드 기준가 수익률 - 판매수수료(선취), 금융투자협회 / B : 1년 정기예금 이자율(잔액), 한국은행

- ② (투자자 니즈 충족 미흡) 저금리 환경하에서 손실 제한, 예금금리+a 등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펀드 상품이 부족
- ③ (성과 공유 미흡) 펀드 손익과 관계 없는 정률 보수 수취는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
- ④ (소규모펀드 난립) 운용사들은 유행에 따라 펀드를 남설하고 충실하게 고객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측면
 - * 공모펀드 자산규모(세계 16위), 펀드당 자산규모(세계 33위), 펀드 수(세계 7위)
- ⑤ (미흡한 정보 제공) 펀드의 구조가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손쉽게 펀드를 비교·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부족
- ⑥ (비경쟁적 산업 환경) 펀드 판매채널과 공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진입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제한
 - * 펀드판매회사 수 : ('09) 132 ('11) 132 ('13) 132 ('14) 131 ('15) 131
 - * 종합운용사 수 : ('09) 48 ('11) 47 ('13) 44 ('14) 44 ('15) 44

Ⅲ 기본 방향

◇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

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도모

현 행

- ① 성과와 무관한 보수 수취
- ②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 소홀
- ③ 판매 서비스 수준에 비해 높은 펀드 판매 관련 비용
- ④ 소규모펀드의 난립

개 선

- ①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를 통해 성과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를 확산(과제1)
- ②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와 투자자간 이해관계를 공유(과제2)
- ③ 판매수수료·판매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판매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 정착(과제3)
- ④ 소규모펀드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리(과제4)

목표2 인가제도 개편,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

현 행

- ⑤ 역량 있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이 제한
- ⑥ 펀드 간 비교가 어렵고, 공시시스템 활용도 미흡
- ⑦ 펀드 판매채널간 경쟁 부족
- ⑧ 낮은 수익률과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 부족

개 선

- ⑤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활성화(과제5) → 5월 둘째주 발표
- ⑥ 펀드 비교공시사이트 전면 개편 등을 통해 펀드 관련 정보의 투자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(과제6)
- ⑦ 펀드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(과제7)
- ⑧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되어 상품간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과제8)

Ⅳ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도모

과제1 공모펀드 성과 보수 활성화

1. 현 황

-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요건*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현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상황

- * ① 증권시장 등에서 널리 공인된 지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
 ② 기준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을 경우 운용 보수를 낮게 받을 것
 ③ (-)의 성과인 경우에는 성과 보수를 받지 않을 것
 ④ 법인은 10억원, 개인은 5억원의 최소투자금액
 ⑤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설립 후 1년 경과될 것

2. 개선방안

가. 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 완화

-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

현 행	개 선 안
① 최소 투자금액(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)	폐 지
②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	개방형(증권펀드), 환매금지형(신평펀드) 모두 허용
③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	공정한 가격으로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
④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	• 객관적 지표(지수) 활용 허용 • 절대수익률(예: 5%) 활용 허용
⑤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	• 개방형 : 자유롭게 수취 • 환매금지형 : 최소 지급기간 6개월
⑥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	현 행 유 지
⑦ 펀드 손실시 성과 보수 수취 제한	현 행 유 지
⑧ 신 설	• 개방형 : 존속기한 없이 설정 • 환매금지형 : 1년 이상의 펀드 존속 기간

- 운용사가 펀드 손실을 우선 충당*(후순위 투자)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(예 : +20~30%)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

* 운용사의 공모펀드 후순위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(§189②) 개정 추진

나. 투자대상 자산별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방식을 마련

증권펀드 : 現 헤지펀드 성과보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·수취

① (산정방식)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*을 기반으로 성과 보수를 각각 산정 후 판매사가 투자자(환매대금)와 운용사(성과보수)에 배분

- * ① 기준지표(예 : KOSPI)를 일정 수준 이상(예 : 10%p) 초과하거나
- ② 절대수익률(예 : 5%)을 초과하는 수익

◇ 성과보수 = 기준수익률 초과수익* × 성과보수율(예 : 15%)

* 환매대금 - [투자원금×(1+성과보수기준율)], 단 초과수익금이 0보다 큰 경우만 산정

○ (예) 원금 100만원, 환매대금(세전) 110만원(수익률 10%), 기준 수익율 5%,

① 성과보수기준 초과수익금액 = 110만원 - (100만원×(1+0.05))= 5만원

② 성과보수 = 5만원 × 15% = 7,500원

② (수취시점)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에 수취하고 중간정산은 불허

③ (산정 주체) 판매회사*가 각각의 투자자별 수익률을 계산

*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별로 투자시점이 달라 같은 시점에 환매하더라도 개인별 수익률이 다름 → 투자자 정보가 있는 판매회사만 개인별 수익률 계산 가능

④ (운용보수 인하)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(예 : 50% 내외)만 수취하도록 하여 성과 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불이익 부여

*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행 보수 수준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설계

⑤ (성과보수 상한 등) 장기투자자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 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성과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(상한 금액 또는 비율은 자율 설정)

*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펀드 수익률이 성과보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만큼, 상한 설정 필요

실물펀드 : 현행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방식을 활용

◇ 부동산, SOC 펀드는 장기투자 특성으로 인해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이 가능(법§230⑤)

* 부동산, SOC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투자가 일반적이며, 투자자금이 수시로 유출입될 경우 정상적 투자가 불가하여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

○ 공모펀드인 환매금지형펀드는 일반투자자들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상장을 의무화(법§230③)

☞ 상장증권인 만큼 판매사를 활용한 투자자별 수익률 계산 불가

① (산정방식)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 보수*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

* 기준수익률 초과수익 × 성과보수율

※ 실물펀드는 모든 투자자의 투자시점이 같아 투자자별로 직면하는 펀드 수익률이 동일 → 일률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더라도 투자자간 형평성이 확보

② (수취시점) 펀드별 결산시점(반기 또는 연간)

③ (산정주체)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펀드별로 수익률을 계산

④ (운용보수 인하)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(예 : 50% 내외)만 수취하도록 하여 성과 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불이익 부여

*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행 보수 수준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설계

⑤ (성과보수 상한 및 공시) 과도한 성과보수가 수취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 상한(예 : 펀드 순자산의 2% 내)을 설정하고 성과보수 차감 2주 전에 성과 보수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공시

과제2

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

- **(현황)**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 상존
 - '1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1.5조원으로 펀드 수탁고 413조원의 0.36%에 불과
 - 1.5조원 중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조원으로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 관행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형성
- **(개선방안)**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·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
 - ① **(대상 펀드)** 원칙적으로 향후 설립되는 공모펀드(MMF, 인덱스펀드 등*은 제외)에 적용하되,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운용사·투자자간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마련된 만큼 제외
(→ 일정기간 동안 성과보수펀드 또는 운용사가 투자한 펀드 신설만 허용)
 - * 구체적인 제외 대상 펀드의 종류는 TF 논의를 통해 확정
 - ※ 기 설립된 펀드의 경우, 펀드 투자권유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운용사의 투자여부를 표기
 - ② **(Seeding 투자 주체)** 운용사를 원칙으로 하되,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펀드 대표 매니저, 운용사 대주주 등의 투자도 인정
 - ③ **(최소 투자 금액)** 소규모펀드 기준액(50억원) 등을 감안하여 최소 투자금액을 설정(예 : 2~5억원) ➡ 펀드 대형화를 유도
 - ④ **(투자 기간)** 펀드 설립 후 3년간은 투자를 유지하고, 3년 후에는 투자자들에게 통보 후 3개월 후부터 환매를 허용
 - ⑤ **(적용 시기·기간)** 행정지도를 통해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1년간 시행
 - * 1년 동안 운영 경과를 지켜 본 후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 추진

과제3

판매수수료·판매보수 체계 개편

- **(현황)** 현행 펀드판매 수수료·판매 보수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*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
 - *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는 펀드 가입 채널(창구 또는 온라인), 가입시 투자 설명 여부, 펀드 관련 공시 전달 방법 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름
- 특히, 일부 펀드판매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비용이 높은 창구판매용 펀드를 비용인하 없이 판매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도 상존
- **(개선)**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·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
 -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* 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·보수보다 낮은 수준(예 : 50% 내외)의 수수료·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(Clean class)
 - * 예) 투자자가 IFA의 자문을 받고 펀드를 선택 후 판매사의 설명 없이 가입
 -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
 - * 창구판매용 펀드 보수를 낮추는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를 허용
 -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를 달리*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예) 수시공시, 보고서 등을 우편이 아닌 이메일 전달시 보다 낮은 보수 수취

과제4

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

- 기 발표된 계획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
 - *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 : ('16.6월) 11% ('16.9월) 7% ('16.12월) 5% 내외
- 정리실적이 미흡한 회사는 목표달성시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 독려
 - * 소규모펀드 비율이 높은 회사는 각종 인가시에도 불이익 부여
- 소규모펀드 억제와 펀드간 합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
 - * 예) 동일 펀드 내에 환 헤지, 표시통화, 이익금 분배 방식 등 투자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 발행 허용 등

V 펀드산업내 경쟁 촉진

과제5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

- **(현행)** 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('14.7월)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개정 자본시장법('15.10월)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
- **(개선)**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완화를 통한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운용사간 경쟁 및 혁신을 촉진

➔ 5월 둘째 주 「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」 발표

과제6 펀드 공시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

1. 현 황

- '09년부터 펀드, 운용사, 판매사의 모든 정보가 집적된 **Data-base**로 「펀드 통합공시시스템」을 금투협이 운용중
 -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, 전문가 위주로 설계되어 투자자들의 이용도가 저조
 - * 일평균 방문자 수가 펀드 기준가격 154명, 수익률 70명, 펀드공시 84명 등 이고 일평균 방문자가 10명 이하인 메뉴가 115개 메뉴 중 74%
 - 펀드 통합공시시스템내 **비교공시시스템**의 경우에도 활용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저조

2. 개선 방안

- ① **펀드 통합공시시스템**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하고, 자문사 전용 펀드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**홍보도 강화**

- ① 펀드통합공시App 등 **펀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***을 지속적으로 유지·보수하고 **홍보를 강화**

- * 펀드통합공시 App(펀드플러스) : 펀드 검색·비교(수익률 순, 주간 판매량 순), 투자자 맞춤형 보유펀드의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
- * 펀드정보 원클릭시스템 : 펀드투자방법, Top 5펀드 등 펀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집적한 웹사이트

- 투자자교육협의회 일반인 대상 교육*시 펀드 관련 통합정보 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소개

* '15년 중 일반인 교육 실적 : 총 512회 / 38,722명

- ② **펀드 판매시 펀드공시시스템**을 활용하여 수익률 비교, 펀드 비용 계산, 운용사·판매사 정보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**이용자 매뉴얼**을 배포
- ③ **펀드투자상담사** 자격 취득 및 보수 교육시 **펀드 공시시스템**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
- ④ **IFA, 금융상품 자문업자**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문사 전용 펀드 정보시스템을 마련

- ②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**수익률 및 펀드 비용**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**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** 개설(가칭 펀드 다모아)

- * 투자자 대표, 펀드평가사 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되는 웹페이지 구성(안) 마련

- 펀드 유형별(① 주식형, ② 채권형, ③ 혼합형, ④ MMF 등) 최근 6개월, 1년, 3년 **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**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표시

- 해당 펀드 클릭시 ① 펀드 판매 **비용이 가장 낮은 5개 판매사**가 나열(해당 펀드판매사 홈페이지 link), ② 운용사, 펀드매니저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**표준화된 요약 정보** 제공

※ (별첨3) 가칭 펀드 다모아 웹페이지 메뉴(안) 참고

과제7 펀드 판매채널 확대

1. 현황 및 평가

- '16.3월말 현재 펀드판매회사는 총 131개사로 은행(19개) · 금융투자업권(101개) 및 보험회사(11개)만 업무 영위
- 그러나, 그간의 펀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감안할 때 펀드 판매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,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접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증
 - * 금융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

2. 개선 방안

가.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펀드 판매업 허용

① (대상회사)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

저축은행 : 총 30개사(총 79개 사 중 37.9%)

- ① (재무요건) 자산 3천억원 이상, BIS비율 7% 이상,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
- ② (비재무요건)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회사는 제외
 - * ① 대출자산비중이 50% 미만인 회사
 - ② 고금리(25%) 가계 대출이 총 가계신용공여의 80%를 초과하는 회사

상호금융 : 총 276개 조합(총 2,270개 조합 중 12.2%)

- * 신탁(19개), 농협(251개), 수협(6) : 다만,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
- 자산 2천억원 이상, 순자본비율 5%(신탁은 3%) 이상,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

우정사업본부 : 총 221개 우체국(총 2,708여개 중 8.2%)

- 인력, 내부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4·5급 총괄국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
 - * 금융당국의 검사권한 확보를 인가조건으로 부여
- ② (취급상품) 서민금융기관의 지역연고 영업 특성과 이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감안하여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
 - (1단계) MMF, 국공채펀드, 일부 채권형(주식편입비율 30%이하만) 부터 판매를 허용(전체 공모펀드의 약 39% 수준)
 - (2단계) 1단계 조치 시행이후 일정기간(예 : 2년) 경과 후에 펀드 판매실적, 미스터리쇼핑 결과 등을 감안하여 상품 범위 확대 검토

나.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 진입 확대

① 온라인 펀드판매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

- * 온라인상에서 오픈마켓 등 운용 경험이 있는 주주가 온라인펀드 판매시장에 진입할 경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개발 가능
- 온라인 펀드판매회사에 금융상품자문업 겸업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 → 판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
- ②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*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업을 허용
 - * 카드모집인을 활용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점 등을 활용한 대면 판매는 제한
- 투자자가 투자펀드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만을 허용 하기 때문에 취급 펀드 상품은 제한 없이 허용

과제8

다양한 공모펀드 출시여건 조성

- **(현황)** 최근 투자자들이 원하는 손실 제한형 펀드, 예금금리+a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펀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함
 - 현행 파생상품위험액(펀드 재산의 100% 이내 투자 가능) 평가방식이 파생계약의 위험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는 측면이 있어 파생상품을 활용한 손실제한형 펀드 출시가 어려움
 - 부동산·SOC등 실물투자펀드는 대부분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공모펀드 참여가 부진
 - * 공모펀드 중 실물펀드 비중 : 2.2% / 실물펀드 중 사모펀드 비중 : 93.9%
- **(개선방안)** 최근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펀드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방안 마련
 - ①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*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 제공
 - *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(1억원)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
 - ※ 예) 최소투자금액, 주기적 환매 기회 부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(공모)펀드 제도를 신설
 - ② 공모펀드가 파생상품투자시 실제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
 - ③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, SOC펀드의 공모·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
 - ※ 예) 실물펀드 공시항목 정비 등
 - ④ 상장지수펀드의 다양성 제고
 - ※ 예) 지수 추종형 ETF의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ETF 출시

V

기대 효과

- ①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이 강화되어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성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
 -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, 낮아진 운용보수만 부과되어 투자자들의 비용이 절감
 - 펀드 수익률이 목표를 초과하면 성과보수가 지급되나, 펀드 수익의 일부(예:15%)만 운용사에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에게 유리
 - 펀드가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,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운용에 보다 역량을 집중
- ②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·펀드 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일부 시정될 전망
 -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펀드에 의무 투자해야 하는 만큼, 성과를 내기 어려운 펀드는 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➡ 경쟁사 복제펀드(Me too 펀드) 및 소규모 펀드 감소
 - 펀드매니저의 경우 3년간 투자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, 현재와 같이 잦은 이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
- ③ 서비스에 기반한 판매보수·수수료 수취로 펀드 판매비용이 낮아지고,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
 - ➡ 저비용 판매 채널이 활성화
- ④ 펀드 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성화로 운용사간 수익률 경쟁, 판매사간 저비용 경쟁이 촉진

VI 향후 추진 계획

구 분	조 치 사 항	시 기
I.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		
①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	성과보수 제한 요건 완화 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	'16.6월 입법예고
	펀드 종류별 성과보수 가이드라인 마련	'16년 하반기
② 운용사의 자기운용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	행정지도	성과보수 시행일부터
③ 판매수수료·판매보수 체계 개편	Clean Class 신설 및 판매보수·수수료 차등화	'16.6월
	온라인플랫폼에서의 창구판매용 펀드 판매 제한 (행정지도)	'16.7월 시행
④ 소규모펀드 정리	지속 추진	연내
II. 펀드 산업내 경쟁 촉진		
⑤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	인가 정책 발표·시행	'16.5월
⑥ 펀드 공시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	펀드 다모아 사이트 개설	'16년 하반기
	펀드통합공시시스템 활용도 제고	'16.7월 방안 마련
⑦ 펀드판매채널 확대	인가신청서 접수	'16.6월부터
⑧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 여건 조성	방안 마련	'16년 상반기

*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한 T/F 구성 운영(5월부터)